



1971년 9월 영국 애플도어사와 조선소 거립에 관한 협의를 진행중인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서산농장에서 키운 '통일소'를 몰고 북한을 방문했다. 분단 이후 정부관리의 동행 없이 민간인 신분으로 판문점을 통과한 첫 번째 인물이었다.



1985년 포니엑셀 신차 발표회장을 찾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포니엑셀은 현대차에서 처음으로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생산한 차량으로 1986년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아산 정주영 닷컴

# “임자! 해봤어?”... 리더십 실종의 시대, 정주영이 그림다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17주기 '기업가 정신'의 대표적인 인물 산업화 일궈낸 흠수저의 업적들과 성장동력 발굴하는 추진력 재조명**

오는 21일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1915년 11월 25일~2001년 3월 21일)의 서거 17주기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정 명예회장의 '도전' 정신이 최근 혼돈에 빠진 한국 기업들에 또 다시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 쉬운 길을 걷기보다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성공시키는 '불굴

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영원한 도전자'라고 불리는 정 명예회장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운 대표적 인물이다. 정 명예회장은 가난한 시골농부의 장남,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제약을 뛰어넘어 세계적 기업을 일군 인간승리의 주인공이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저 먼 곳의 발과 눈으로 향하곤 했다'는 부친의 피를 물려 받은 정 명예회장은 쌀집가게 배달원부터 시작해 미곡상회, 자동차수리공장, 건설회사 등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시대 흐름을 읽는 타고난 안목으로 최고 부자 대열에 우뚝섰다.

'임자! 해봤어?'라는 도전정신으로 유명한 정 회장은 어린시절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소 1마리를 몰래 끌고 나온 후 불효를 갚겠다고 1998년 6월16일 통일소 500마리를 현대자동차가 만든 트럭에 싣고 북으로 가 세계적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6·25전쟁을 겪고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서 정 명예회장은 창조적 기업가 정신과 강한 추진력으로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을 설립해 세계 시장에 진출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 서산간척지 개발 등 국내외 수많은 역사적 사업을 이끌었다. 지금도 '흠수저'의 대표적 인물로 정주

영 회장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미국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1996년 출간한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우리나라를 '기업가정신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언급하기도 했다. 세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가들의 과감한 도전이 없으면 사회·경제적으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정 명예회장의 불굴의 개척정신처럼 스스로 감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잠재력 있는 기술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명예회장의 추모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용히 치뤄질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1일 고 정주영 명예회장 17주기에 분향소 설치 대신 추모 음악회와 선영 참배 등으로 명예회장의 17주기를 추모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1년 정 명예회장 타계 이후 매년 울산 본사 체육관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대규모 추모식을 열어왔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추모식 대신 음악회와 선영 참배만 하고 있다. 범현대가는 정 명예회장의 17주기 하루 전인 20일 저녁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그룹별로 선영 참배에 나설 예정이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청와대 본관 전경. /뉴시스

## 응답하라 청와대?... 국민청원의 명암 '긍정적 취지 공감' vs '분노 배출창구'

성인 대상 설문 ... 84%가 긍정 평가 새 정부 출범 후 선보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도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약 5명은 직간접적으로 게시판에 참여했고, 청원 남발 등을 보완하기 위한 실명제 도입 등의 의견도 있었다. 19일 인크루트가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성인 남녀 3516명을 대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넘는 83.7%가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77.4%는 '국민청원 제도의 신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이처럼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 국민 여론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에서 '국민들의 크고 작은 여론이 각종 법안이나 생활제도 변경 등에 잘 반영되는 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는 58.1%로 나타났다. 이 때문인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는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달하는 44.8%로 집계됐다. 32.1%

는 '투표에만 참여했다'고 했고, 7.9%는 '청원 게재와 투표에 모두 참여했다'고 답했다. 4.8%는 '투표 참여 없이 청원만 게재했다'고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은 '청와대와의 직접 소통 공간이라는 점'(32.0%)을 들어 공감한다고 했고, 이어 '상대적으로 의견표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표출의 장을 열어주었다는 점'(25.1%), '건전한 청원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것'(22.7%) 등을 매력적인 요소로 봤다. 반면, 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공론화된다'(20.2%), '단순한 분노의 배출창구가 될 수 있다'(17.8%), '과도한 의견 표출이 난무할 수 있다'(17.5%), '특정 개인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17.5%)는 점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실명제 도입'(28.8%), '과도한 청원을 줄일 수 있도록 청원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 마련 필요'(28.6%), '청원 대상자 중 특정 개인의 인권 보호 보장'(21.1%), '청원 답변 조건 상향'(15.4%)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용수 기자 hys@

## “섬유산업 1.2조 투자해 2022년 5위 재탈환”

(세계 시장)

**산업부 섬유패션산업 전략 발표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

한때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었던 화학 섬유산업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관련업계가 2022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사업구조 다각화 및 고용 창출에 나선다. 정부 또한 첨단 산업용섬유 집중 육성 및 섬유패션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2022년까지 세계 5대 섬유패션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휴비스 전주공장에서 섬유패션업계와 전문가,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섬유패션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섬유패션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고부가가치·차별화된 섬유패션 제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성장 돌파구

를 마련하고, 상생 산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탄소섬유, 슈퍼섬유 등 산업용섬유를 집중 육성해 현재 4%에 머물러 있는 세계시장 점유율을 2022년까지 10%로 끌어올리고 스마트의류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소비자 맞춤형의류 등 신산업 기반의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첨단 산업용섬유 집중 육성을 위해 초고강도(T-1000급), 범용(10달러 이하/kg) 탄소섬유 등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 용·복합소재, 메디컬 섬유, 안전보호용 섬유, 고성능 부직포 등 제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잉 등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및 수요연계 사업과 소방·경찰·전기 등 공공수요를 대상으로 한 제품개발과 현장실증을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 30명 이상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인증 기반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섬유패션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북과 대구·경북지역에는 '탄소산업', 서울·부산·대구지역은 '패션 의류' 등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한 스트림별 지역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우리 섬유패션산업이 지난 1987년 제조업 중 수출 100억 달러를 가장 먼저 달성하며 경제성장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고 현재도 고용의 8%를 책임지는 핵심주력 산업"이라며 "이번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재정립하는 한편, 국내 산업구조도 재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공정위 “38년 묵은 공정거래법 싹 바꾼다”

분야별 외부전문가 구성 특위 출범

공정거래위원회가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7월까지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검토하고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어 경쟁·기업집단·절차법제 분야 논의 과제 17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27회 수정을 함에 따라 흠뻑리진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면 개편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장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했으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산하에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